실내공간계획에 대한 신세대의 주거기대와 주거선호

A Study of Housing Interior Design through Housing Expectations and Housing Preferences of Future Consumers-College Students

윤 복 자* 최 형 선** 조 명 은***
Yoon, Bokcha Choi, Hyungseon Cho, Myung Eu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using expectations and housing preferences of college students' first purchased house for the future. Data was collected through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for this study and the samples consisted of 797 college students. This study found that college students preferred a high-rise apartments, a 20-24 pyung ($66.0m^2$-$79.2m^2$) house in housing size and relatively new house. The housing features and interior features that college students like to have and expected to have in the first residence were different. Their housing expectations were fairly realistic considering their affordability. College students preferred to furnish video and audio equipments, exercise equipments and ceiling fans. They generally preferred hardwood floorings and decorative moldings and expected to have built-in closet in their master bedrooms. They expected to have linen closets and large mirrors in their bathrooms. They preferred ceramic tile counter tops, wood cabinets, vinyl floorings in their kitchens and they also preferred to use kitchen as a utility.

I. 서 론

인류 역사 속에서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빠른 속도의 변화 속에서 곧 다가 올 21세기에 대비하여 미래 사회에 대한 예측적 연구가 다양한 시각과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정보화 사회의 가속화,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 도시기능의 구조와 변화, 지구환경에 대한 인식의 제고 등이 그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측된다.

미래 사회의 주역인 신세대 소비자들은 앞으로 모든 소비재와 상품 뿐만 아니라 주거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크게 수요를 좌우할 것이다. 또한 주거선호에 있어서 변화가 생긴다면 우선적으로 이들에게서 나타날 것이므로 향후 주택정책의 방향이나 미래 주거유형개발 등과 관련시켜 볼 때 신세대 소비자들의 주거에 대한 선호와 기대를 파악하고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Hohm, 1983: Goetz & Colton, 1980).

일반적으로 주거에 관한 미래지향적인 개념은 기대와 선호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분류된다. 선호와 기대는 미래의 조건이나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평가하는 개념으로, 주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용한 개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래의 주택 구매자인 신세대 소비자의 주거기대와 선호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세대는 대학생으로 하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1997년도 학술진흥재단 국제협력연구 '신세대 소비자의 주거기대와 선호를 통한 주거행동 예측' 지원금에 의해 수행된 연구의 일부임.
*정회원, 연세대 주거환경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전문연구원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박사과정

(1) 주택특성에 대한 대학생들의 주거기대와 주거선호를 파악한다.

(2) 주택실내특성에 대한 대학생들의 주거기대와 주거선호를 파악한다.

(3) 대학생들의 주거기대와 주거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신세대

특정 세대가 새롭다는 뜻의 신세대의 실체는 명확히 정의되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18-29세에 이른 연령층을 말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이들 집단을 단순히 인구통계학적 연령만으로 규정짓기는 어렵다(이화자, 1994). 신세대를 구분하는데 있어서 대부분의 연구(조은정, 1994; 권미화, 1994; 박재홍, 1995)는 급격한 변동을 겪게 한 역사적 사건이나 사회적 상황 즉, 8.15 해방, 6.25 전쟁과 휴전, 60년대의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산업화 추진, 70년대의 경제 성장을 통한 소비의 대중화 시대 등을 근거로 '전후세대', '베이비붐 세대', '신세대' 등 기성세대와 대비하여 젊은층을 지칭하고 있다.

이러한 신세대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경제적으로 풍족한 시기에 태어나 풍요와 자본주의에 젖어 자란 이들에게 절약은 미덕이 아니며(동아일보, 1993), 기성세대가 생필품 중심으로 기능 상품을 구입하는 단순 소비, 내구성 소비를 한다면 신세대는 문화용품 중심으로 고감각 상품을 선호하는 복합 소비, 소모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취미적 소비지향, 집착적 소비지향이 높은 특성, 술집이나 노래방 등 상업적 유흥공간에서 표현되는 신세대의 놀이문화(박재홍, 1995)를 보더라도 대중매체 특히 컬러 텔레비전을 통한 광고의 홍수 속에서 '패션' 상품시대의 소비 문화의 표적이 된 신세대는 소비가 곧 놀이이며, 감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소비자라고 할 수 있다.

2. 주거기대 및 주거선호

일반적으로 주거에 관한 미래지향적인 개념은 규범과 선호, 열망과 기대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분류된다. 규범은 주거에 관한 인간 행동에 대한 문화적 기준이나 법칙을 말하는 것이며 열망은 개별 가구의 미래에 대한 욕구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기대와 선호는 미래의 조건이나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평가하는 개념이다 (Morris & Winter, 1978). 대개의 경우 주거에 대한 생각을 파악하고자 할 때 주거규범이나 열망을 생각하는데 이는 단지 마음 속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이미지이므로 이를 주거 대안에 반영하기는 어렵다. 또한 규범과 열망은 하부 문화의 종류에 관계없이 이 내용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주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주거기대와 선호라는 미시적인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기춘 외 3인(1994)의 신세대가 선호하는 주거에 대한 조사를 보면 신세대는 인간적이고 개성적인 소규모 주거단지를 선호하였다. 결혼 여부에 따라서는 선호에 차이가 없었으나 성별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객관적인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고급자재와 시설, 개방적 구조와 친숙한 이웃, 여가시설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았고 폐쇄적인 생활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높았다. 또한 성장할 때 높은 수준으로 생활하였다고 생각할수록 고급 생활환경을 선호하며 공동 사용보다 개인 소유를 더 선호하였다.

오찬옥(1992)은 중년층을 대상으로 노인주거 특성에 대한 선호 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중년층의 특성을 규명하고 노인주거 특성에 대한 선호가 부부동거상태와 건강상태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연구하였다. 김상호 외 2인(1994)의 연구에서는 초고층 아파트 거주자의 거주 층수 선호도를 조사하였는데 현재 거주하는 층수와 선호하는 층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고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선호하는 층수가 저층

부와 고층부로 구분되어 있었다. 황유진(1995)은 아파트 거주자들의 실내 공간에 대한 미적인 선호 경향을 가구주 연령, 주택 규모, 거주지역, 주생활양식 별로 조사하였다. 김혜정(1996)은 가족유형에 따른 공동주택 선호 성향을 조사하였다. 심은실과 강순주(1997)는 라이프 스타일을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이들의 원룸주택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는데 대체로 원룸을 많이 원하고 있으며 그 유형에 있어서는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많았다.

Goss & Dagwell(1992)은 대학생들의 주거에 대한 열망과 기대를 조사하였는데 대부분의 응답자가 언젠가는 단독주택에서 살 계획이라고 답하였고 처음으로 구입할 주택에 있기를 원하는 것은 침실 3개와 2.5개[1]의 욕실이 있는 2층짜리 현대적인 집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은 고급스러운 주택의 설비품을 바랬지만 처음 구입하게 될 집에서는 비교적 현실적인 평가를 하였고 남녀간에 차이가 있었다.

3. 주택특성

주거행동연구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주택특성 변인은 크게 주택유형, 소유형태, 주택규모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주택유형은 소비자의 공간사용행태, 주거환경의 질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서 주택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중요하다(주택산업연구원, 1996). 주택유형의 구성비는 크게 변화되어 왔는데 단독주택의 경우 1995년 구성비는 33.3%, '90-'95년 사이의 연평균 증가율은 -3.0%로 줄어들고 있다. 반면 아파트의 경우 1995년 구성비는 42.4%로 전체주택유형 중 가장 많은 유형이 되었으며, 증가율은 '90-'95년 사이에 연평균 8.5%씩 증가하고 있어 향후 주거유형은 절반이 아파트 형태의 주거유형이라 볼 수 있다(통계청, 인구 및 주택총조사, 1995).

또한 선호하는 주택의 유형과 관련하여 주택산업연구원(1996)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향후 이주하여 살고 싶은 주택유형은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젊은 세대일수록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데, 20대가 타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파트를 선호한다고 지적하였다(김한수 외 2인, 1998: 대한주택공사, 1997b). 대한주택공사가 행한 '97 무주택가구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무주택가구들이 향후 내집 마련시 원한는 주거유형은 아파트로 나타났다. 아파트 중에서는 저층아파트보다는 고층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주택공사, 1997b).

소유형태를 살펴보면 1995년 전국의 자가소유율은 53.3%, 수도권은 46%, 서울은 39.7%이다(통계청, 인구 및 주택총조사보고서, 1995). 우리나라의 경우 1가구 1주택이 정책 목표이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대부분의 가구들은 자가 소유에 대한 요구가 강하며 연구결과에 따르면 신세대들 역시 주택소유에 대한 의식이 강하다.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1997a)의 6대 도시 설문조사 결과 주택이 꼭 있어야 한다는 소유의식은 서울이 87.7%, 부산이 88.1%, 대구가 89.1%, 인천이 90.4%, 광주가 89.9%, 대전이 85.7%로 소유의식이 전반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주택규모는 주거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주거수준의 향상이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적 측면에서 그 기준에 대한 논란이 많다(주택산업연구원, 1996). 우리나라 주택규모는 주택당 평균 전용면적 기준으로 1980년 20.6평에서 1990년 24.6평으로, 가구당 평균 전용면적 기준으로는 1980년 13.9평에서 1990년 15.5평으로 변화되어 왔는데(인구주택총조사, 1990), 이처럼 주택규모에 대한 큰 평수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규모별 주택수요를 합리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토개발연구원(1997)의 조사에 따르면 '97년 현재 전용주거면적은 22.6평이며, 1인당 주거면

적은 6.5평, 방당 가구원수는 1.54인이다. 희망하는 주택규모는 주택산업연구원(1996)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향후 이사하고자 할 경우 원하는 주택규모는 30평형태의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한주택공사(1997b)에 따르면 내집 마련시 희망하는 주택규모도 전용 25.7평 이상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주택의 실내특성

소득 수준과 더불어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주택의 규모와 크기뿐만 아니라 주택의 실내환경에 대한 거주자들의 관심도와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다. 즉, 실내 디자인 및 마감재가 주택에 대한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박홍, 오영근, 1995). 또한 아파트 거주자들은 실내 분위기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마감재의 종류 및 수준, 색채, 가구 조명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했으며, 가구주 연령과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규모에 따라 선호하는 실내 색채, 마감재와 실내의 분위기에는 차이가 있었다(김선희, 조성희, 1997).

안방은 과거에는 가족실의 개념이 강했으나 점점 부부침실로 기능이 변해 가고 있는 과도기에 있어서 안방에 대한 거주자들의 태도와 만족도는 연령에 따라 다른데 30대 이상은 안방의 요소 중에서 크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한 반면 20대는 가구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여(박홍, 오영근, 1995; 홍이경, 오혜경 1997) 침대와 같은 입식 가구, 그리고 기능적인 가구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기능적인 가구에는 붙박이 가구가 포함되는데 거실의 장식장은 차지하는 면적에 비해 수납공간이 충분하지 않고 또 기존의 장식장의 디자인이 좋지 않아 설치되지 않기를 바라는 반면 안방에는 붙박이장이 설치되기를 바라고 있었다(김선희, 조성희, 1997; 최영순, 박현옥, 1998).

우리나라 주택 공간 중에 가장 많은 변화를 겪은 공간 중의 하나인 욕실은 현재는 주로 생리위생공간으로서 사용되고 있으나 욕실에 대한 태도와 선호도 역시 연령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주부 연령이 젊을수록 욕실 설비와 욕실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젊은 연령층일수록 욕실에 대한 관심이 많고 욕실설비와 욕실 환경에 대한 기대가 높으며(이영심, 1996; 조명은, 1994), 대학생도 현재의 욕실과는 다른 욕실을 기대하고 있었다(윤정숙외, 1997). 소득이 낮은 계층은 욕실을 세탁 공간이나 가사작업공간으로도 사용하기를 희망하고 있어서 연령과 소득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였다.

부엌은 주부가 하루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사작업공간인데 현재에는 부엌을 취사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부엌을 다용도실까지 확장시켜 더 넓게 쓰면서 세탁시설을 놓고 싶어 한다(윤복자외, 1994). 가사작업을 효율적으로 하면서 세탁행위를 지원하기 위해 식기세척기, 디스포져, 빨래건조기, 정수기, 식기건조기, 전자레인지, 세탁기의 순으로 부엌에 설치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부엌의 설비와 시설도 기능화, 고급화된 것을 선호해서 가스버너 4개가 달린 것, 키큰 장을 갖고 싶어하며, 부엌작업대의 상판재료가 현재는 멜라민으로 된 것이 많지만 미래에는 인조대리석 상판으로 된 작업대를 가지고 싶어한다. 한편 젊은 연령층의 기호는 다른 세대와는 많이 다른데 특히 전통적인 부엌유형인 벽면부착형보다는 거실을 향해 있는 거실대면형이라는 현대적인 유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문헌조사를 통해 연구를 위한 이론적 근거와 조사를 위한 개념적 틀을 정하고 연구문제와 가설을 설정한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인 신세대 대학생의 주거기대와 선호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한다. 실태조사는 설문지를 통한 실문지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입수된 자료에 대해서는 컴퓨터 통계프로그램 SPSSWIN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내용을 국한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주택 의 특성은 무엇인가?

1-1.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주택형태는 무엇인가?

1-2.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주택의 상태는 무엇인가?

1-3. 대학생들의 선호하는 주택의 규모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주택의 실내 특성은 무엇인가?

2-1.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주택의 설비는 무엇인가?

2-2.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실내장식과 마감처리는 무엇인가?

2-3.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안방 가구는 무엇인가?

2-4.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욕실 설비는 무엇인가?

2-5.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부엌 설비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3) 대학생들이 주거에 대한 기대와 선호는 어디에서 영향을 받는가?

3-1.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주택특성은 어디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가?

3-2.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주택의 실내 특성은 어디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가?

2. 예비조사

예비조사는 연세대학교 학부 재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는 1997년 11월 15일에 이루어졌다. 총 3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고 이 중 응답 내용이 부실한 경우를 제외한 25부를 분석하였다. 예비조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설문내용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설문지의 문항 중에서 두 문항을 선정하여 중복시켰다. 중복된 문항간의 일치도를 상관계수로 구한 결과 .90, .6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신뢰할 수 있었으며, 연구팀의 세미나와 논의를 거쳐 본 조사를 위한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3. 본 조사

1) 설문 구성

본 연구를 위한 조사방법으로는 설문지를 이용한 실태조사를 한다. 조사도구인 설문지의 내용은 주택관련 변인(과거의 주거 경험), 개인적 변인(연령, 성별, 전공, 부모 직업), 주거 기대와 주거선호(주택 유형, 공간과 규모, 주거의 질), 등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표집방법

본 조사는 예비조사에서 사용하였던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1997년 11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전집대상은 도심과 비도심권에 있는 대학교 재학생들로서 무작위로 선정하고 다시 전공별로 나누어 표집하는 다단계 표집을 하였다. 선정한 학교를 대상으로 총 948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이 중 805부를 회수하여 회수율은 84.9%였으며 이 중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797부를 실제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입수된 자료를 컴퓨터 통계프로그램 SPSSWIN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IV. 조사분석 결과

본 장에서는 신세대 주거선호에 대한 연구결과를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연구문제별 분석결과로 나누어 정리한다.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인구학적인 특성과 주택특성을 조사하였다.

1) 사회인구학적인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전공, 부모의 직업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는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 가운데는 여학생이 64.6%로 남학생(35.4%)보다 많았고 연령은 20세 이하의 1학년 학생이(39.3%), 전공은 주거학 관련학과(39.9%), 부모직업은 사무직 종사자(25.4%)가 가장 많았다.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N=797

구분		분포	f(%)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	남	282(35.4)
		여	515(64.6)
		소계	797(100.0)
	연령	20세 이하	313(39.3)
		21세	169(21.2)
		22세	96(12.0)
		23세 이상	219(27.5)
		소 계	797(100.0)
	전공	주거학전공자	318(39.9)
		인문계열	302(37.9)
		이공계열	177(22.2)
		소 계	797(100.0)
	부모 직업	자영업	52(6.5)
		판매서비스직	118(14.8)
		생산직	36(4.5)
		사무직	202(25.4)
		전문직	140(17.6)
		관리직	188(23.6)
		기타	41(5.1)
		무응답	20(2.5)
		소 계	797(100.0)
주택특성	오래 살았던 주택유형	단독 주택	356(44.7)
		다세대 주택	38(3.5)
		다가구 주택	11(1.4)
		연립 주택	47(5.9)
		아파트	346(43.4)
		기타	9(1.1)
		소계	797(100.0)
	주택 소유권	자가	638(80.1)
		임대	113(14.2)
		기타	41(5.1)
		무응답	5(0.6)
		소계	797(100.0)

2) 주택특성

조사대상자의 주택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오래 살았던 주택유형, 주택소유권 등을 조사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오래 살았던 주택유형은 단독주택(44.7%), 아파트(43.4%) 순으로 나타났고 주택소유권은 자가가 80.1%로 비교적 많아서 1995년 전국의 자가소유율 53.3%에 비해 높았다.

2. 연구문제별 분석결과 및 논의

연구문제별 분석결과를 정리한 것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주택 의 특성은 무엇인가?

1-1.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주택형태 는 무엇인가?

1-2.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주택의 상태는 무엇인가?

1-3. 대학생들의 선호하는 주택의 규모는 무엇인가?

대학생들이 처음 구입하게 될 주택 형태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6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를 가장 선호하는 것(42.8%)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 50대와 60대는 단독주택을 선호하는데 비해 20대는 아파트를 매우 선호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 외 주상복합건물이나 오피스텔에 대한 선호도도 29.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20대가 기능복합주택을 다른 연령층에 비해 선호한다는 김한수외 2인(1998), 대한주택공사(1997)의 연구와도 일치했다. 반면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이 처음 구입하게 될 주택의 상태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비교적 새 집(38.5%)을 가장 선호하며, 그 다음 새로 분양하는 집(37.0%)에 대한 순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약

표 2. 처음 구입하게 될 주택의 특성 N=797

주택의 특성		f(%)
주택의 형태	6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	341(42.8)
	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	233(29.2)
	단독주택	96(12.0)
	5층 이하의 저층 아파트	62(7.8)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	35(4.4)
	연립주택	28(3.5)
	무응답	2(0.3)
	계	797(100.0)
주택의 상태	비교적 새집	307(38.5)
	새로 분양하는 집	295(37.0)
	고칠 필요가 없는 상태가 좋은 오래된 집	79(9.9)
	오래된 주택을 사서 고치거나 개조하고 싶다.	75(9.4)
	기타	36(4.5)
	무응답	5(0.6)
	계	797(100.0)
주택의 규모	15-19평	200(25.1)
	20-24평	251(31.5)
	25-29평	182(22.8)
	30-34평	108(13.6)
	35-39평	30(3.8)
	40평 이상	16(2.0)
	무응답	10(1.3)
	계	797(100.0)

80% 정도가 새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이 처음 구입하게 될 주택의 규모에 대한 질문결과는 표 2와 같다.

20-24평을 가장 선호(31.5%)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5-19평이 25.1%로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고, 25-29평이 22.8%로 그 다음의 순이었다. 1997년 현재 우리나라의 전용 주거면적은 22.6평이며 내집마련시 희망하는 주택규모(대한주택공사, 1997)는 전용주거면적 25.7평 이상이 65.4%로 가장 높았는데 대학생들이 이보다 적은 20-24평을 가장 선호하는 이유는 처음 구입하게 될 주택규모이므로 자신의 경제상태를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응답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연구문제 2)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주택의 질적 특성은 무엇인가?

2-1.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주택의 설비는 무엇인가?

2-2.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실내장식과 마감처리는 무엇인가?

2-3.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안방 가구는 무엇인가?

2-4.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욕실 설비는 무엇인가?

2-5.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부엌 설비는 무엇인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주택내의 설비품목과 이상적으로 희망하는 설비품목을 조사한 것은 표 3과 같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설비품목으로는 비디오 · 오디오시설(90.6%), 운동기구(56.7%), 천정팬(51.3%)의 순으로 많았으며, 이상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설비품목도 비디오 · 오디오시설(93.6%), 운동기구(75.6%), 천정팬(68.7%)의 순이었다. 현실과 이상사이에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품목은 벽난로, 홈바, 사우나, 도난방지장치의 순이었다. 도난방지장치에 대한 거주자의 선호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안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인데 신세대도 이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주택의 실내장식과 마감처리에 대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이상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조사한 것은 표 4와 같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무를 깐 바닥(60.2%), 장식이 있는 문(52.4%), 유리 미닫이문(39.8%)의 순으로 많았다. 이상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무를 깐 바닥(76.5%), 매입등(62.9%), 장식적인 몰딩(62.9%)의 순이었다. 현실과 이상사이에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표 3. 주택내 설비품목 N=795

	품 목	f(%)		품 목	f(%)
현실	비디오 · 오디오시설	720(90.6)	이상	비디오 · 오디오시설	744(93.6)
	운 동 기 구	451(56.7)		운 동 기 구	601(75.6)
	천 정 팬	408(51.3)		천 정 팬	546(68.7)
	도난방지장치	301(37.9)		도난방지장치	495(62.3)
	홈 바	104(13.1)		홈 바	441(55.5)
	벽 난 로	72(9.1)		벽 난 로	412(51.8)
	사 우 나	27(3.4)		사 우 나	295(37.1)

것은 천창, 둥근 천장, 매입 등의 순이었다. 현재 거의 획일적으로 계획되는 실내장식과 마감처리에 대해 거주자들의 불만이 높았는데 이는 입주하기도 전에 개조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김미희, 이유미; 1998). 반면 실내마감재와 설비에 관한 선호는 거주자의 주생활 양식과 연령 및 현재 거주하는 주택규모에 따라 다르다고 했는데(황유진, 1994), 신세대는 기존의 실내장식과 마감처리와는 다른 개성적이고 아름다운 것을 희망하고 있었다.

안방설치 가구에 대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이상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조사한 것은 표 5와 같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가구는 침대(91.4%), 옷장(75.8%), 붙박이장(73.1%)의 순이었으며, 이상적으로 희망하는 가구는 침대(91.4%), 붙박이장(78.4%), 경대(79.1%)의 순이었다. 현실과 이상 사이에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드레스룸, 테이블과 의자, 사이드 테이블의 순이었다.

안방 요소 중에서 크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한 30대 이상의 응답자와는 달리 20대는 가구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응답했는데(박홍, 오영근, 1995; 홍미경, 오혜경, 1997),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신세대를 포함한 젊은 연령층은 입식으로 안방을 사용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침대와 같은 입식가구와 붙박이장과 같은 기능적인 가구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주택의 실내장식과 마감처리 N=797

	품 목	f(%)		품 목	f(%)
현실	나무를 깐 바닥	480(60.2)	이상	나무를 깐 바닥	610(76.5)
	장식이 있는 문	418(52.4)		매 입 등	501(62.9)
	유리 미닫이문	317(39.8)		장식적인 몰딩	501(62.9)
	장식적인 몰딩	309(38.8)		장식이 있는 문	495(62.1)
	매 입 등	276(34.6)		천 창	405(50.8)
	나무로마감한벽	212(26.6)		나무로마감한벽	398(49.9)
	거울로마감된벽	142(17.8)		유리 미닫이문	362(45.4)
	천 창	75(9.4)		거울로마감된벽	323(40.5)
	둥 근 천 장	53(6.6)		둥 근 천 장	291(36.5)
	기 타	9(1.1)		기 타	29(3.6)

표 5. 안방 설치 가구 N=795

	품 목	f(%)		품 목	f(%)
현실	침 대	727(91.4)	이상	침 대	727(91.4)
	옷 장	603(75.8)		붙 박 이 장	663(78.4)
	붙 박 이 장	581(73.1)		경 대	629(79.1)
	경 대	573(72.1)		테이블과 의자(휴식용)	623(78.4)
	이 불 장	457(57.5)		옷 장	602(75.7)
	테이블과 의자(휴식용)	362(45.5)		사이드 테이블	536(67.4)
	사이드 테이블	344(43.4)		이 불 장	515(64.8)
	드 레 스 룸	87(10.9)		드 레 스 룸	451(56.7)
	기 타	16(2.0)		기 타	33(4.2)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욕실의 수와 이상적으로 바라는 욕실의 수[1]를 조사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현실적으로는 대다수가 1개(60.1%)내지 1½개(26.0%)를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상적으로는 2개(44.5%)내지 1½개(25.3%)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는 욕실을 2개 이상 설치하기를 희망하는 기성세대(이영심, 1996; 조명은, 1994)와도 일치한다.

안방욕실의 세면기에 대해서 현실과 이상적으로 희망하는 형태는 표 6과 같이 모두 세면기 아랫부분이 수납장으로 되어 있는 형태였는데, 이상적으로 이 형태를 훨씬 더 선호하고 있었다. 이 형태는 외관상 좋을 뿐만 아니라 수납 면적을 증대시키므로 좋아하는 것으로 보인다.

안방에 딸린 욕실의 설치품에 대해 현실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이상적으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조사한 것은 표 7과 같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설치품은 수납장(86.3%), 대형거울(81.5%), 욕조내의 샤워기(75.3%)이었다. 이상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설치품목은 대형거울(89.3%), 수납장(89.1%), 욕조내의 샤워기(66.5%)이었다. 현실과 이상 사이에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자쿠지, 사우나, 샤워부스의 순이었는데 이상적으로는 많이 희망하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

표 6. 욕실의 특성 N=797

욕실의 특성		현 실	이 상
욕실의 수	1개	479(60.1)	158(19.8)
	1½개	207(26.0)	202(25.3)
	2개	97(12.2)	355(44.5)
	2½개	5(.6)	61(7.7)
	3개 이상	2(.3)	18(2.3)
	무 응 답	7(.9)	3(.4)
세면기 형태	세면기 아랫부분이 노출된 형태	379(47.6)	78(9.8)
	세면기 아랫부분이 수납장으로 된 형태	413(51.8)	710(89.1)
	무응답	5(.6)	9(1.1)

표 7. 안방에 딸린 욕실의 설치품 N=795

품 목		f(%)	품 목		f(%)
현실	수 납 장	686(86.3)	이상	대 형 거 울	710(89.3)
	대 형 거 울	648(81.5)		수 납 장	708(89.1)
	샤워기(욕조안)	599(75.3)		샤워기(욕조안)	529(66.5)
	일 반 욕 조	515(64.8)		샤 워 부 스	490(61.6)
	세 탁 기	316(39.7)		자 쿠 지	431(54.2)
	샤 워 부 스	241(30.3)		비 데	385(48.4)
	비 데	203(25.5)		사 우 나	348(43.8)
	건 조 기	106(13.3)		세 탁 기	336(42.3)
	천 창	96(12.1)		일 반 욕 조	318(40.0)
	자 쿠 지	44(5.5)		천 창	308(38.7)
	사 우 나	23(2.9)		건 조 기	274(34.5)
	온 실	16(2.0)		온 실	194(24.4)
	기 타	5(.6)		기 타	24(3.0)

표 8. 처음 구입하게 될 주택의 부엌 재료 N=797

작업대 상판재료		f(%)	작업대 상판재료		f(%)
현실	플라스틱	304(38.1)	이상	도기타일	395(49.6)
	스테인레스스틸	284(35.6)		플라스틱	242(30.4)
	도기타일	187(23.5)		스테인레스스틸	119(14.9)
	무응답	22(2.8)		무응답	41(5.1)
	계	797(100.0)		계	797(100.0)
수납장 재료		f(%)	수납장 재료		f(%)
현실	플라스틱	413(51.9)	이상	목재	595(74.7)
	목재	367(46.1)		플라스틱	179(22.5)
	무응답	17(2.0)		무응답	23(2.8)
	계	797(100.0)		계	797(100.0)
바닥 재료		f(%)	바닥 재료		f(%)
현실	목재	329(41.3)	이상	비닐(룸 종류)	523(65.6)
	도기타일류	225(28.2)		도기타일류	126(15.8)
	비닐(룸 종류)	213(26.7)		목재	125(15.7)
	무응답	30(3.8)		무응답	23(2.9)
	계	797(100.0)		계	797(100.0)

하고 있었다. 거울과 수납장은 실용적인 용도로 필요한 설치품인데 비해 자쿠지, 사우나 등은 욕실을 휴식, 건강관리 공간으로 사용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필요한 설치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주부연령이 젊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욕실을 생리위생공간이외 개인휴식, 건강관리 공간으로 사용되기를 희망한다는 연구(이영심, 1996; 조명은, 1994; 최형선, 1988)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부엌설비를 조사하기 위하여 처음 구입하게 될 주택의 부엌 작업대 상판재료를 조사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부엌의 작업대 상판재료는 플라스틱(38.1%)이 가장 많았고 스테인레스스틸(35.6%), 도기타일(23.5%)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적으로 생각할 때 원하는 부엌의 작업대 상판 재료는 도기타일(49.6%), 플라스틱(30.4%), 스테인레스스틸(14.9%) 순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도기타일을 원하는 비율이 절반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즉 현실적으로는 멜라민과 같은 플라스틱류로 되어 있는 작업대를 많이 보아왔고 구입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이상적으로는 도기타일을 원하고 있어 현실과 이상과의 차이가 벌어짐을 알 수 있다.

처음 구입하게 될 주택의 부엌 수납장 재료를 조사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부엌의 수납장 재료는 플라스틱(51.9%)이 목재(46.1%)보다 많았으며 이상적으로 선호하는 부엌의 수납장 재료는 목재(74.7%)가 플라스틱(22.5%) 보다 많았다. 즉 현실적으로는 플라스틱류가 많기 때문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이상적으로는 목재를 선호함을 알 수 있다. 윤복자외(1994) 연구에서도 응답자들이

현재는 멜라민류로 된 것이 많지만 미래에는 인조 대리석 상판으로 된 작업대를 가지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작업대 상판을 고급재료로 하기를 희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처음 구입하게 될 주택의 부엌 바닥 재료를 조사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부엌의 바닥 재료는 목재(41.3%), 도기타일류(28.2%), 비닐류(26.7%) 순으로 나타났고, 이상적으로 선호하는 부엌의 바닥 재료는 비닐류(65.6%)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도기타일류(15.8%)와 목재(15.7%)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즉 현실적으로는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목재가 설치 가능하다고 여기고 있지만 이상적으로는 유지관리와 종류가 다양한 비닐류를 많이 원하고 있었다.

처음 구입하게 될 주택의 부엌 설비품목을 조사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부엌 설비 품목은 전자레인지(91.1%), 세탁기(74.2%), 부엌 안에 식사공간(67.6%)으로 나타났고, 이상적으로 선호하는 부엌의 설비품목은 전자레인지(90.1%), 오븐(85.8%), 부엌 안에 식사공간(78.8%), 식기세척기(77.7%), 세탁기(75.8%) 순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의 수준을 감안할 때 전자레인지나 세탁기, 부엌 안 식사공간은 설치가 가능하지만 이상적으로 선호하는 것은 특히 오븐과 식기세척기, 세탁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미래 신세대 소비자의 취향이 현재보다 더욱 다양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현재는 부엌을 취사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부엌을 다용도실까지 확장시켜 더 넓게 쓰면서 세탁시설을 갖추고 싶어한다는 윤복자(1994)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연구문제 3) 대학생들이 주거에 대한 기대와 선호는 어디에서 영향을 받는가?

3-1.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주택특성은 어디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가?

3-2.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주택의 실내 특성은 어디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가?

표 9. 처음 구입하게 될 주택의 부엌 설비 품목 N=797

	품 목	f(%)		품 목	f(%)
현실	전자레인지	726(91.1)	이상	전자레인지	718(90.1)
	세탁기	591(74.2)		오븐	684(85.8)
	부엌안에 식사공간	539(67.6)		부엌안에 식사공간	628(78.8)
	오븐	474(59.5)		식기세척기	619(77.7)
	독립형 가스레인지	435(54.6)		세탁기	604(75.8)
	식기건조기	314(39.4)		식기건조기	571(71.0)
	식기세척기	311(39.0)		독립형 가스레인지	542(68.0)
	건조기	225(28.2)		쓰레기압축기	508(63.7)
	음식물찌꺼기 분쇄기	158(19.8)		건조기	489(61.4)
	쓰레기 압축기	139(17.4)		음식물찌꺼기 분쇄기	470(59.0)
	홈바	69(8.7)		홈바	428(53.7)
	기타	16(2.0)		기타	33(4.1)

디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가?

주택에 대한 이상적 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조사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이상적 개념 형성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요인은 주변에서 인상적으로 보아온 실내, 그 다음으로는 자신의 창의적인 생각이며, 정보원으로는 TV나 영화, 주택관련 잡지로서 대중매체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에 대한 이상적 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조사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이상적 개념 형성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요인은 주변에서 인상적으로 보아온 실내가 80.7%로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원으로는 주택, 실내장식 관련 잡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면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는 그동안 주위에서 보아온 집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집이 주택과 실내에 대한 이상적 개념형성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주택의 이상적 개념에 영향을 가장 많이 준 정보원은 TV나 영화인데 비해 실내의 이상적 개념에 영향을 준 정보원은 주택과 실내 관련 잡지인 것으로 나타나 정보원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 준다.

표 10. 주택에 대한 이상적 개념에 영향을 준 요인

N=797

구 분		f(%)
주변환경	부모님의 집	95(11.9)
	친척, 친지의 집	15(1.9)
	내가 주변에서 인상적으로 보아온 집들	452(56.7)
	내 자신의 창의적인 생각	197(24.7)
	기타	20(2.5)
	무응답	18(2.3)
	계	797(100.0)
정보원	주택관련 잡지	245(30.7)
	TV나 영화	418(52.4)
	대학에서 배운 과목	61(7.7)
	고등학교에서 배운 과목	6(0.8)
	기타	43(5.4)
	무응답	24(3.0)
	계	797(100.0)

표 11. 실내에 대한 이상적 개념에 영향을 준 요인

N=797

구 분		f(%)
주변환경	내가 주변에서 인상적으로 보아온 실내	643(80.7)
	부모님의 집	74(9.3)
	기타	53(6.6)
	친척, 친지의 집	16(2.0)
	무응답	11(1.4)
	계	797(100.0)
정보원	대학에서 배운 과목	53(6.6)
	인테리어 디자이너	126(15.8)
	전문 가구점	35(4.4)
	주택, 실내장식 관련 잡지	430(54.0)
	TV나 영화	92(11.5)
	기타	34(4.3)
	무응답	27(3.4)
	계	797(100.0)

V. 결론 및 제언

신세대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주거기대와 주거선호에 대해 분석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과 제언을 한다.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주택유형은 고층아파트,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로 기성세대(50, 60대)가 선호하는 단독주택과는 차이가 있다. 주택규모는 20-24평으로서 대부분 새집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성세대가 내집마련할 때 희망하는 25.7평보다는 작은 평수이다.

주택내 설비에 대한 주거기대와 주거선호 품목이 거의 비슷한 것은 비디오,오디오 시설, 운동기구, 천정팬이고 벽난로, 홈바, 사우나 등에 대해서는 주거선호가 높다. 실내장식과 마감처리에 대해서는 주거기대와 주거선호 항목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나무를 깐 바닥, 장식있는 문, 유리미닫이 문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했고 매입등, 장식적 몰딩은 이상적으로 바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천창, 둥근 천장과 같이 새롭고 독특한 것에 대한 주거선호가 높다.

또한 신세대는 안방을 입식으로 쓰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입식가구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며 장농보다는 붙박이장을 선호한다. 특히 드레스룸에 대한 선호가 높아서 안방을 부부전용침실로 사용하고 수납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욕실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1개를 기대하지만 적어도 1.5개 이상을 두기를 희망하며 충분한 수납시설을 원하고 있다. 또한 건강관리와 휴식에 필요한 자쿠지와 사우나에 대한 주거선호가 높아 욕실을 건강관리 및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기를 희망한다. 부엌에 대한 신세대의 주거기대와 주거선호에는 차이가 있는데 부엌 작업대, 수납장, 바닥재료에 대해 현재에는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익숙한 재료를 선호하지만 앞으로는 고급재료를 선호하고 있으며, 더불어 부엌을 다용도실로까지 포함하는 가사작업공간으로 사용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한다.

신세대 소비자의 주거선호와 주거기대는 기성세대와 같은 점도 있었지만 주택 크기는 좀 작고 주상복합건물이나 오피스텔을 고급화하고 입식가구를 선호하며 부엌, 욕실 등에 시설설비를 알차게 하는 등 그들이 원하는 주거선호와 기대에 대

응할수 있도록 실내공간계획에 유연성이 있어야 겠다. 또한 신세대소비자를 포함하여 연령층에 따른 다양한 실내특성을 갖춘 주택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디자인 지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주

1) 욕실에 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가 모두 설치되어 있는 것을 1개, 변기와 세면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1/2개라고 한다.

참고문헌

1. 권미화(1994). 미혼신세대 소비자의 여가선호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 김상호 외 2인(1994). 초고층 아파트 입주자의 거주 층수 선호도 및 층수 선택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0**(6).
3. 김혜정(1996). 가족 유형에 따른 공동주택 선호 성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11).
4.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1996). 임대주택시장 분석 연구.
5. 동아일보(1993. 4. 11-12. 9일자). 신세대.
6. 박재홍(1995). 신세대의 일상적 의식과 하위문화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학, 29.
7. 심은실, 강순주(1997).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원룸 주택 선호도. 한국주거학회지, **8**(3).
8. 오찬옥(1992). 중년층의 선호 성향을 통해 본 노인주거모델.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9. 이기춘 외 3인(1994). 신세대 소비자의 선호에 관한 실태조사: 결혼 방식, 주거, 여가시설 및 탁아시설 선호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2**(3).
10. 이화자(1994). 신세대 시장의 마케팅적 의의와 공고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논문.
11. 조은정(1994). 신세대소비자의 주거가치와 주거선호. 서울대 박사논문.
12. 황유진(1995). 도시아파트 거주자 특성에 따른 실내양식 선호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3. 주택산업연구원(1996), 도시유형별 주택수요 분석.
14. 대한주택공사(1997b), '97 무주택가구 주거실태조사보고서.
15.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1997a), 경제·사회환경 변화가 주택소비, 주택점유형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6. 국토개발연구원(1997), 주거복지제도 평가와 개선방안.
17. 박 홍, 오영근 (1995. 4). 아파트 실내환경 선호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4.
18. 이영심(1996). 거주자가 요구하는 아파트의 욕실. 박사학위논문. 한양대 대학원.
19. 윤정숙, 전영미, 김수경(1997). 욕실공간 계획을 위한 감성공학적 접근. 대한가정학지지. **35**(3).
20. 김선희, 조성희(1997. 6). 아파트 마감방식 다양화를 위한 거주자의 실내디자인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8(2).
21. 최영순, 박현옥(1998. 6). 주거환경 계획을 위한 거주자 요구 조사 -김해시를 대상으로-. 한국주거학회지. **9**(2).
22. 홍이경, 오혜경(1997. 6). 아파트의 수납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11.
23. 윤복자 외(1994). 사회계층별 주생활실태와 소비자 행동 예측모델 개발 -부엌가구를 중심으로-. 연세대 생활과학연구소.
24. Earl W. Morris & Mary Winter(1978). Housing, Family, and Society. John Wiley and Sons, New York.
25. Goetz, R. & K. W. Colton(1980). The Dynamics of Neighborhoods: A Fresh Approach Understanding Housing and Neighborhood Change. Journal of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46.
26. Hohm, C. F.(1983). Expectations for Future Home Ownership. Housing and Society, 10.
27. Hohm, C. F.(1984). Housing Aspirations and Fertility.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68.
28. Mikyung Ha & Magaret Weber(1992). Housing Value Patterns and Orientation of Households. Housing & Society, **19**(3).
29. Rosemary C. Goss & Carol V. Dagwell (1992). Housing Aspiration and Expectations of College Students: 1960 and 1988. Housing & Society, **19**(3).

(接受 : 1998. 9. 21)